



3·1운동 배경과 정신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올해 3월 1일은 3·1절 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인 날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 일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일본은 1910년 국권 침탈로 우리나라를 빼앗아 식민지통치를 하면서 고위문화권을 말살하고 한민족의 토지 금융 광산 철도 등 모든 분야의 이권을 독점경영 하면서 한민족의 경제 발전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3·1운동은 일제 강점 시대에 가장 빛나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모든 계층이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전국적이었다. 또한 조선 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달게 받는다고 한 일제의 선전이 허위였음을 일시에 폭로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3·1운동은 이후에도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의 사상적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10년 이래 한국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통치하에 놓여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항일 독립투쟁은 각지에 의병(義兵)을 낳고 널리 민족 계몽 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 경찰제도를 시행하여 항일 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투옥하고, 모든 결사(結社)와 언론 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 정책에서도, 우민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고, 특히 무력투쟁으로 혹은 외교활동을 통하여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한 선두에 섰다. 한편 국내의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小作農)·화전민(火田民) 등으로 전락하였으며, 생활난으로 인하여 만주 등지로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인·학생·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은 14개 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 원칙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승하(昇遐)하게 되자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毒殺說)이 유포되어 한민족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극도에 달하였다. 고종황제의 人山(장례) 일이 3월 3일로 정해지자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은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전국에 있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인들이 서울로 모이게 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었다. 이것을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으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3·1운동의 배경이다. 1945년 해방 후 3·1운동의 날을 3·1절 국경일로 정해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3·1운동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기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3·1절을 지금까지 우리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로 생각해 왔으며 3·1절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면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고 있으면서 국기 게양조차 하지 않는 가정이 많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일본에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독립을 하기 위해 일본에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에 의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국 각지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일본의 무력 진압에 맞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8·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정부 수립 후는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독재와 맞서 4·19학생 의거로 이어졌고, 군부 독재와 항거한 5·18 광주 항쟁으로 이어져 오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 자주독립 정신으로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올해 105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의 3·1운동 정신을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 국가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봄에게

김용선 글/고향지킴이



가람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차가운 겨울밤, 봄에게 살며시 다가갈 이른 편지를 띄운다.

추위를 회상하며 봄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무지개 같은 아이로 돌아가 손목은 떨리고 가슴 두근거린다.

함께 놀던 길목 어귀에 허수와 바람개비 만들고 나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려 볼까?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 나의 설렘 가슴 되어 노란 복수초꽃으로 새하얗게 날릴지도 모르잖아.

넌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 안개꽃 같은 추억을! 그려놓고, 오늘도 봄에게 편지를 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Chat GPT”를 이용한 ~예요” 계속 믿으실 건가요?

조영훈 광양경찰서 경무계순경

“김광양님~ 박사기씨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한 투자 시스템으로 고수의 보신거 아니죠?”
이런 멘트를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많은 신뢰도를 얻은 Chat GPT를 이용한 신종·변종 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처음 Chat GPT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나서부터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았다. 똑똑한 AI, 순식간에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만큼 가져다 준다. 그 ‘편리함’ 만큼 사기에 노출되기 더욱 쉬워졌다. 예를 들어 증권사 임원,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하여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던지, 가짜 투자업을 설치하게 한 후 강제 자동결제를 하게 만든다. 한편 경찰은 투자리딩방·암화회화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4·5호로 선정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변종 사기는 다양한 계층에게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이다. 특히나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으로부터의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물론 젊은 계층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종·변종 사기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쉬운 고소득의 유혹에는 더욱 주의를 요하며, 사전에 유의사항이나 신·변종 사기의 사례들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살인’ 행위인 사기를 저지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가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한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